

## 기독교인 비율, 지속 하락세에서 2024년부터 반등!

기독교 인구의 가파른 하락세가 멈추고 마침내 반전의 신호가 나타났다. 최근 공개한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최저치(37%)를 기록한 후, 2025년 40%를 회복하며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 2004년 정점 이후 줄곧 하락하던 탈종교화의 가파른 기세가 일단 저지된 모양새다. 특히 기독교인 비율 역시 20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18%를 기록, 불교와 가톨릭을 제치고 종교 지형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교회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무종교인 비율은 60%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52%)이 종교에 대해 불신을 넘어 아예 ‘관심이 없다’고 답한 점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존재한다. 과거의 탈종교화가 종교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이탈’이었다면, 이제는 종교 자체를 삶의 선택지에서 지워버린 ‘심리적 단절’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비종교인 3명 중 2명이 호감 가는 종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결과는 종교의 사회적 매력이 역대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

기독교 인구 반등이라는 희망과 종교 무관심이라는 냉기가 공존하는 시대, 이번 <넘버즈 330호>를 통해 한국 교회가 ‘불신’보다 무서운 ‘무관심’의 벽을 넘어 종교 밖 사람들의 내적 갈망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선교적 돌파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 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표본 규모	총 7,647명 / [현황·인식 4,606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면접조사원 일대일 개별 면접(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표본 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표본 오차	95%신뢰수준에서 $\pm 1.1\%p$
조사 기간	2025년 결과 : 2025년 3월 ~11월
조사 수행 기관	한국갤럽

\*과거 조사 개요 (조사기간, 표본오차,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의뢰/수행처는 모두 위와 동일)

제1차: 1983년 8월 25일~9월 8일 / 만 18세 이상 1,946명 /  $\pm 2.2\%p$  (보고서는 1984년 발행)

제2차: 1989년 3월 4~10일 / 만 18세 이상 1,990명 /  $\pm 2.2\%p$  (1989년 발행)

제3차: 1997년 9월 14~26일 / 만 18세 이상 1,613명 /  $\pm 2.4\%p$  (1998년 발행)

제4차: 2004년 1월 13~31일 / 만 18세 이상 1,500명 /  $\pm 2.5\%p$  (2004년 발행)

제5차: 2014년 4월 17일~5월 2일 / 만 19세 이상 1,500명 /  $\pm 2.5\%p$  (2015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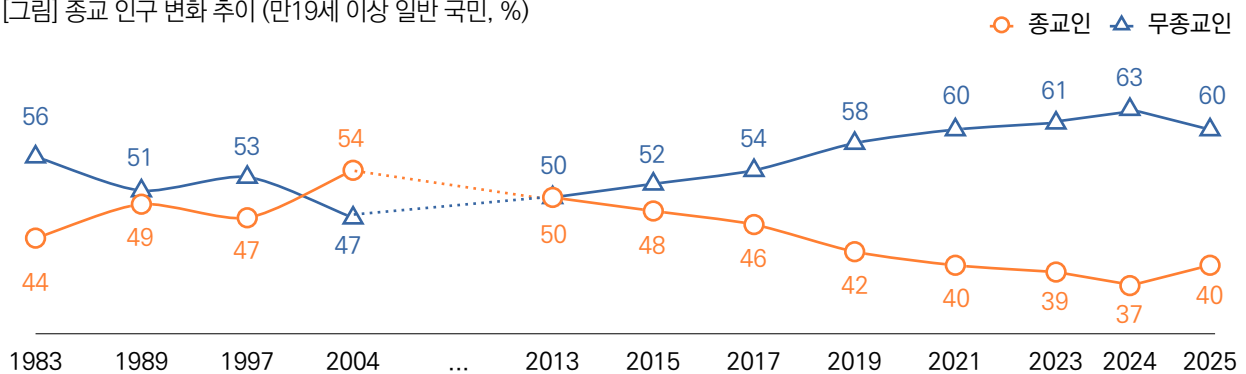
2013~2024년 종교 인구 분포: 만 19세 이상 연간 4,500~10,650명 /  $\pm 1.5\sim 0.9\%p$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종교 현황·인식: 2021년 3월 18일~4월 7일 1,500명 /  $\pm 2.5\%p$

## 탈종교화 속 종교 인구, 2025년 40%로 깜짝 반등!

-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지난 40년간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종교 인구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년(37%) 대비 3%p 상승한 수치로, 2004년 정점(54%)을 찍은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꺾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 탈종교화 속 2025년 종교 인구가 다시 40%대를 회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이다. 여전히 무종교 인구가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60%대 초반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탈종교화의 가파른 기세가 일단 저지되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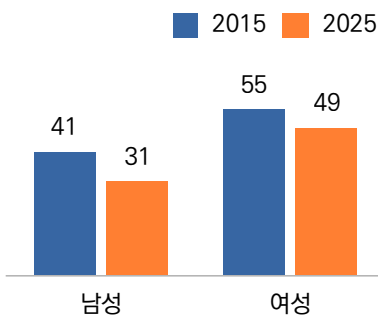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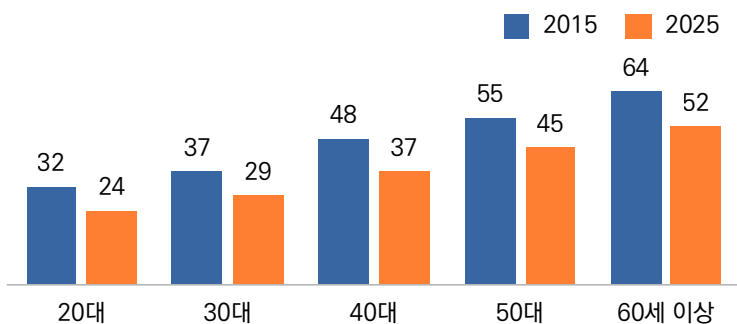
## 최근 10년 새, 남성 감소폭이 여성 감소폭보다 더 커!

- 최근 10년 간(2015년 대비 2025년) 인구 특성별 종교인 분포 변화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 감소폭이 여성 감소폭보다 더 컸고, 연령별 지표에서도 전연령대에서 8~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 종교인만 52%로 절반을 사수했다.

[그림] 성별 종교인 비율 변화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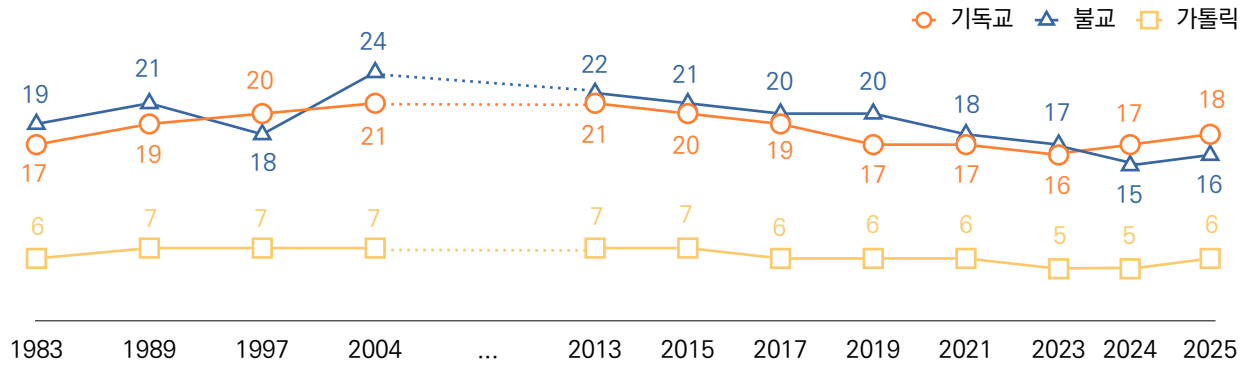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 기독교인 비율, 지속 하락세에서 2024년부터 반등!

-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2025년 기준 기독교인 비율은 18%로, 2004년 이래 하락과 정체를 이어가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와 가톨릭도 각각 16%, 6%로, 전년(2024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 기독교의 청년층 점유율, 3대 종교 중 독보적 우위

- 이번에는 종교인별 연령별 구성을 살펴본다. 40대 이하층에서 기독교가 불교, 가톨릭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는 기성세대에서 불교세가 강한 것과 달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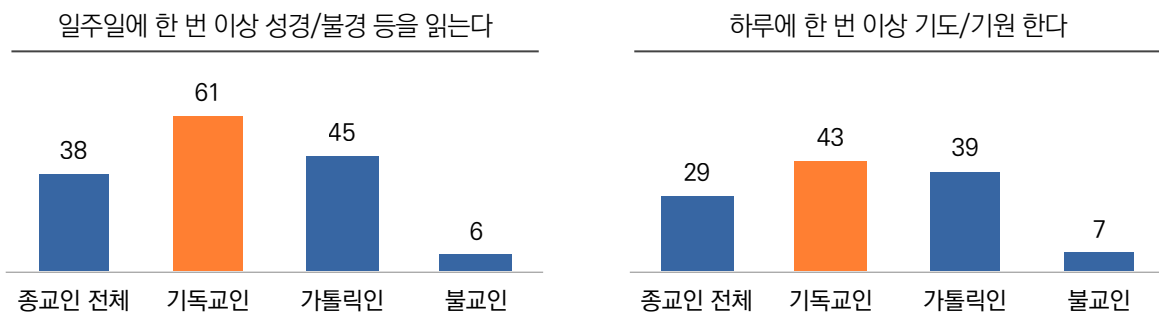
[표] 종교인별 인구 특성 (2025,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구분	현재 믿는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무종교	계	
전체	18	16	6	60	100.0	
성별	남성	13	13	5	69	100.0
	여성	<b>23</b>	19	7	51	100.0
연령별	19~29세	<b>14</b>	4	6	76	100.0
	30대	<b>16</b>	6	7	71	100.0
	40대	<b>19</b>	11	6	63	100.0
	50대	19	19	7	55	100.0
	60세 이상	18	<b>27</b>	6	48	100.0

## 기독교인, 타 종교인 대비 높은 '경건 실천' 돋보여!

- 종교인의 신앙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성경(경전) 읽기'와 '기도' 빈도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력이 타 종교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경전)을 읽는다'는 응답에서 기독교인은 61%를 기록해 종교인 전체 평균(38%)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가톨릭인(45%)보다 16%p 높고, 특히 불교인(6%)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종교별로 신앙생활의 방식과 실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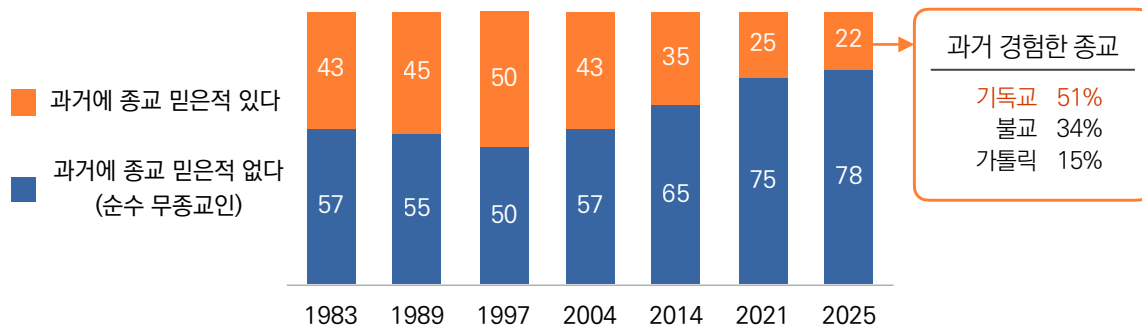
[그림] 종교인의 신앙생활 (2025,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22%, 역대 최저!

-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인 비율이 6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을 살펴 보았다.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5년 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 종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수 무종교인' 비중(78%)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탈종교화가 단순한 종교 이탈을 넘어 '종교 무경험'이 고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과거 신앙 경험이 있는 무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 출신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불교 34%, 가톨릭 15% 순이었다. 이는 타 종교 대비 기독교에서 무종교로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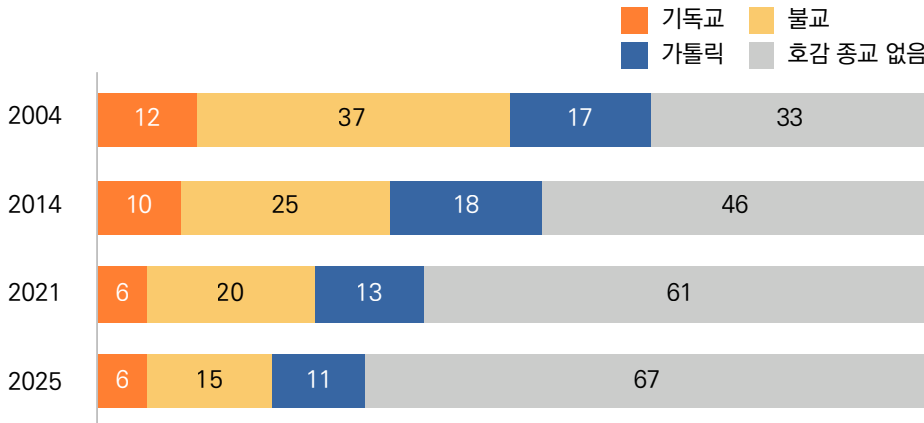
[그림] 무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무종교인, %)



## 무종교인 3명 중 2명(67%), '호감 가는 종교 없다'!

- 무종교인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무엇일까?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차수·조사에서 불교, 가톨릭, 기독교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33%, 2014년 46%, 2025년에는 67%까지 상승했다.
- 특히 2025년 기준 무종교인 3명 중 2명이 어떤 종교에도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가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회복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가장 호감 가는 종교 (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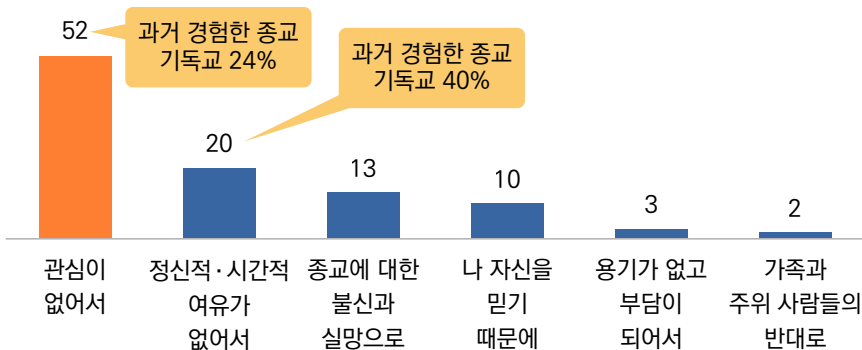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무종교인 종교 믿지 않는 이유, '관심 없어서'!

-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2025년 기준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0%),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13%) 등의 순이었다.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불신'보다 '무관심'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 특히 과거 기독교를 경험한 무종교인의 경우 '무관심'보다는 '정신적·시간적 여유 없음'을 더 많이 선택했는데 이는 이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삶의 여건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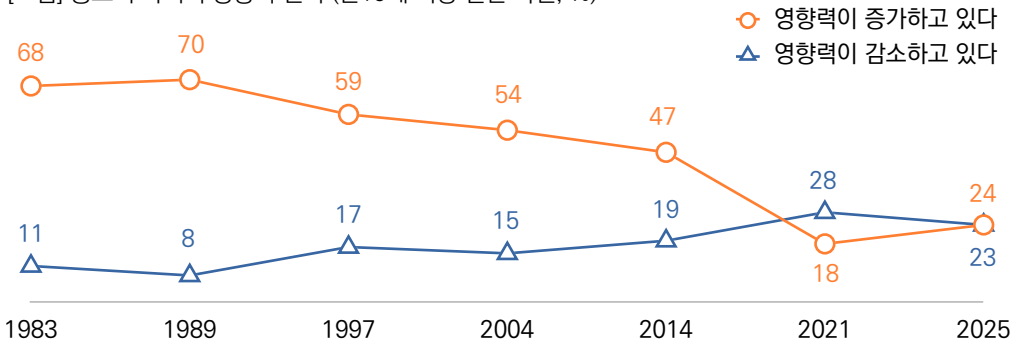


\*기타 응답 거절은 제외

## 종교 영향력 인식, 80년대 '증가 우세'에서 '증가·감소 팽팽' 국면 진입!

- 과거 대비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종교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응답 비율은 1980년대 약 70% 수준에서 2004년 54%, 2014년 4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 18%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5년 24%로 6%p 반등했으나, 지난 40년간 흐름을 보면 감소세가 역력하다.
- 한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1983년 11%에서 2014년 19%로 10%대에서 완만한 등락을 보이다가 2025년에는 23%를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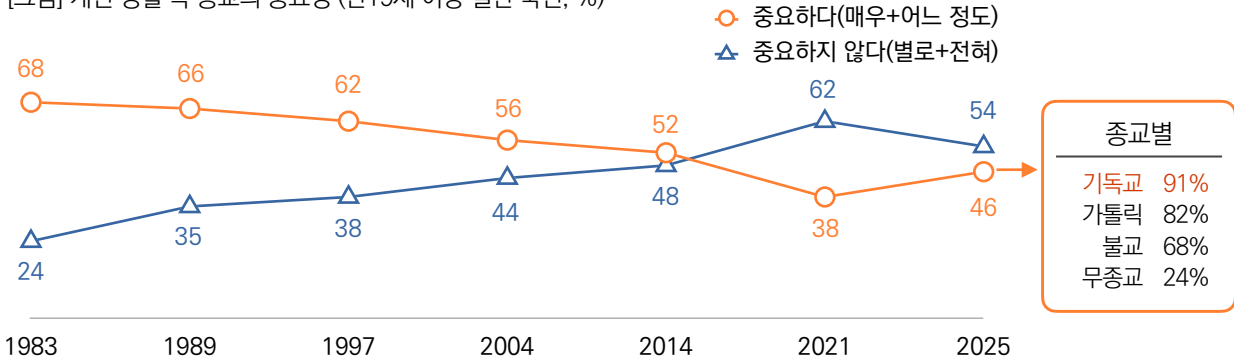


\*3점 척도(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비슷하다,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향력 증가와 감소 수치만 제시함.

## 기독교인 91%, 개인 삶에서 종교 중요!

- 개인 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은 결과, 2025년 기준 중요하다(매우+어느 정도)는 46%, 중요하지 않다(전혀+별로)는 54%로 나타났다. 종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 약 7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38%까지 낮아졌으며, 2025년에는 46%로 8%p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은 상황이다.
-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91%, 가톨릭 82%, 불교 68%가 종교를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무종교인은 24%에 그쳐 종교 유무에 따라 중요성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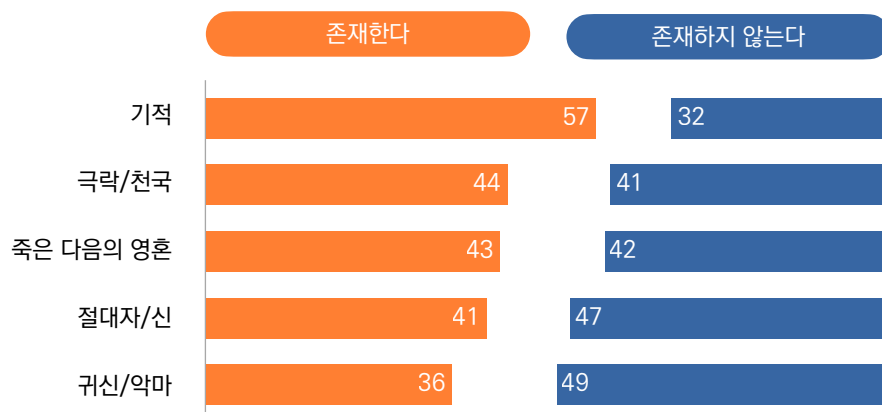
[그림]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 우리 국민 절반 이상(57%), '기적' 믿는다!

- 우리 국민의 초자연적 세계관을 가늠하고자 5가지 초자연적 개념에 대한 존재 여부를 물었다.
- 5가지 각각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기적 57%, 극락/천국 44%, 죽은 다음의 영혼 43%, 절대자/신 41%, 귀신/악마 36%의 국민이 각각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아무래도 종교인이면 이 5가지 항목에 대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조사 결과는 40% 안팎의 결과를 보였다. 다만 '기적'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종교인 비율(40%)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무종교인이라도 '기적'을 믿는 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했다.

[그림] 초자연적 개념 존재 여부 (2025,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



Note) 각 항목별 합이 100이 안되는 이유는 '무응답'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번호 요약

### 1. 탈종교화 속 종교 인구, 2025년 40%로 깜짝 반등!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비율(성인 기준)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년(37%) 대비 3%p 상승한 수치로, 2004년 정점(54%)을 찍은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꺾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 2. 기독교인 비율도 2024년부터 반등!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독교인 비율은 2025년 기준 18%로, 2004년 이래 하락과 정체기를 이어가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3. 기독교의 청년층 점유율, 3대 종교 중 독보적 우위!

종교인별 연령별 구성을 살펴봤을 때, 주목할 점은 40대 이하층에서 기독교가 불교, 가톨릭을 크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환대의 신학 (김진혁 저, IVP)

## 관련 성경 구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 탈종교화의 가파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종교 인구와 기독교인의 반등'이라는 희망적인 지표를 보여준 동시에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심리적 거리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째, '반등의 신호'를 발판 삼아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교회를 찾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착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04년 이후 이어진 하락과 정체의 흐름을 끊어낸 이번 기독교인 비율의 반등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예상하고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타 종교 대비 청년층(2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한국 교회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제 교회는 다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수적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전도를 넘어, 교회를 찾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연결되며 신앙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가족 정착과 양육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관심의 벽'을 넘기 위해 종교적 권위를 내려놓고 '일상의 접점'을 회복해야 한다. 비종교인의 절반 이상(52%)이 종교에 대해 불신을 넘어 '무관심'하다는 결과는 기존의 공격적인 전도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제 교회는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고단한 일상의 짐을 덜어주는 '안식처'이자 '의미 있는 관계'를 제공하는 공동체로서의 매력을 회복해야 한다. '무관심의 벽은 교리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만 허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